

## 로마서 8장—성경 전체의 초점과 우주의 중심

성경: 롬 8:2, 10, 4-6, 11, 13-15, 28-29

- I.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영의 법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의 생활을 위해 믿는 이들에게 신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계시한다—롬 8:2, 10, 6, 11, 28-29.
  - A. 하나님의 갈망과 목표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생명의 영의 법의 생명이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내주하시는 영은 이 생명을 우리 각 사람 안으로 끊임없이 전달하심으로 교회를 건축하시고, 성도들을 함양하시며, 우리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하고 계신다—롬 8:2, 고후 3:6, 요일 5:16.
  - B. 우리는 사람으로서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 사는 길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참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반드시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 통제받고 지시받아야 한다—롬 8:2.
    1.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롬 8:4.
      - a.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적이나 관심사나 유익을 위해 무언가를 고집한다면, 그 일 자체가 최악되거나 부도덕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 b. 성경에 따르면 제삼의 선택이나 중립지대는 없다. 모든 것은 육체를 따른 것이든지 영을 따른 것이다—롬 8:4, 6, 9, 요 3:6, 갈 5:17, 6:8, 벰전 3:18.
      - c. 우리가 육체를 제해버린다면 남는 것은 영이다. 우리는 육체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다만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음으로써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다.
    2. 우리는 영을 따라야 한다—롬 8:5.
      - a. 영을 따르고 육체를 따르지 않는 생활이 내적인 법, 곧 생명의 영의 법을 실현하는 것이다—롬 8:2.
      - b. 육체를 따르는 것은 죄와 죽음의 법에 비유될 수 있는 중력의 법칙에 따라 땅 위에 머무르는 것과 같다.
      - c. 영을 따르는 것은 생명의 영의 법에 비유될 수 있는 공기 역학의 법칙에 따라 비행기에 타고 있는 것과 같다.
      - d.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 e. 우리가 영을 따르기를 선택한다면 생명의 영의 법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할 것이다.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비교 롬 8:6.
      - f.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생명의 영의 법의 ‘스위치를 켜는’ 영적인 습관을 세워야 한다—딤후 4:7.
      - g. 생명의 영의 법,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시키시는 영이 모든 믿는 이들 안에 설치되었다. 그분의 생명 공급을 받기 위해 우리는 다만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분을 높여드리므로써 우리의 영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사 12:2-6.
    3. 우리는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해야 한다—롬 8:5.
      - a.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그 영의 일들에 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항상 우리의 생각을 그 영의 일들, 곧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들로 점유되게 하는 것이다.

- b.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전 2:9-11, 14.
  - c.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그 영의 일들, 곧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들로 점유되게 하는 습관을 세우기를 훈련해야 한다.
  - d. 아가서에서, 추구하는 이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병이 났다(아 2:5, 5:8). 그녀의 생각 속에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 e. 영적 전쟁의 비결은 우리의 생각을 비어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두 영, 곧 우리 사람의 영과 함께하시는 신성한 영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에 연결하신다. 우리의 생각이 두 영에 의해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는 승리한다—롬 8:6, 16.
  - f. 로마서 8장 6절에 나오는 ‘영에 둔 생각’이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영의 생각’이다. 그리스도의 생각, 곧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점유되고 적셔진 생각이다—빌 2:5, 고전 2:16.
4.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롬 8:13, 5.
    - a. 몸의 행실은 우리의 옛 습관들이다. 이러한 행실은 죄악된 일들뿐만 아니라, 그 영을 떠나 우리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 b. 우리는 우리의 몸의 행실들을 주도적으로 죽이기 위해 내주하시는 영과 협력해야 한다. 이럴 때 그 영께서 오셔서 이러한 행실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적용하심으로써 그것들을 죽이실 것이다.
  5.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롬 8:14.
    - a. 그 영의 인도가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의 인도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러한 인도 아래 산다면,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행하고 또 처신할 것이다.
    - b. 여기서 인도는 다만 그 영의 행동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인도가 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한 분으로 관심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인도를 받을 것이다.
  6.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외쳐야 한다—롬 8:15.
    - a. ‘아빠’는 아람어이고, ‘아버지’는 헬라어 ‘파테르’를 번역한 것이다. 아버지를 부를 때 아람어 칭호와 헬라어 칭호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더 강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 b.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것은 친아들과 그를 낳은 아버지 사이의 친밀한 생명 관계를 함축한다—롬 8:16.

**II.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의 초점과 우주의 중심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체험하고 있다면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 A. 영원 과거에 하나님은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의 생명이 되시어 그들이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들 안으로 들어오실 목적을 세우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다—엡 1:3-5.
- B.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생명과 내용이 되시고 사람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사람이 그분에 의해 살고 심지어 그분을 살아낼 때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부터 표현되신다.
- C. 스가랴서 12장 1절은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한다.

1. 사람의 영이 하늘과 땅과 동일한 위치에 놓인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갈망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다—엡 2:22, 비교 딤후 4:22.
  2. 하늘은 땅을 위해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 있으며, 사람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 D. 우주 안의 중심 초점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우주 안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사 66:1-2, 요 14:23, 15:4.
- E.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기쁨으로 찬양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이시고,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만들고 계신다—엡 3:14-17.
- F. 로마서 8장에서 내주하시는 영은 삼일 하나님이다.
1.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에서 영과 하나님은 동격인데, 이것은 그 영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가리킨다—롬 8:9.
  2.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과 ‘생명의 영’은 그 영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부활시키시는 분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 영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삼일 하나님의 셋 모두가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다—롬 8:9, 11, 2.
  3. 로마서 8장에서 그 영은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과 적용으로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시다. 그 영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달하시고 적용되신 분이시다.
  4.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삼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함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고후 4:7.
- G.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영은 거듭나 생명이 된다(롬 8:10).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에 관한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둘 때, 우리의 생각이 생명이시다(롬 8:6). 더 나아가 부활시키시는 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은 우리의 몸에 생명을 주실 것이다(롬 8:11).
1. 하나님의 경륜과 영원한 목적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안에서 하기 원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곧 그분께서 구속하신 백성 안에 넣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넣는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갈망이 성경의 초점이다.
  2. 우리의 영과 생각과 몸에 주신 생명은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과 적용이신 내주하시는 영이다.
  3. 우리가 생명이 부족하여 약해졌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숨 쉬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애 3:55-56, 영한동번찬송가 73장 2절(한국복음서원 찬송가 65장 2절).
  4.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이신 그 영을 들이마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온 존재 안으로 퍼지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점점 더 많이 우리 안에 더해지신다. 이것이 우리 속에 계신 주관적인 하나님을 소유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5.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더해지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생명 요소를 받게 될 것이다—골 2:19.
  6. 우리가 이 생명 요소로 자라는 동안,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태 짓고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찬양, 새사람,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거처는 우리가 이 생명을 체험하는 데서 산출된다—롬 8:29.
  7. 궁극적으로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돌아오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음 시대로 안내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과 우주의 중대한 초점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이다.